

“초고령 사회 대응”... ‘영암형 통합복지’ 체계 구축 박차

군단위 첫 ‘통합돌봄추진단’ 신설...실태조사 착수 살던 집서 맞춤형 복지 제공 등 지역사회 해법 제시

영암군이 올해 전국 군 단위 최초로 통합돌봄추진단을 신설하고, 지속적 관계 형성과 네트워크 돌봄 등을 골자로 한 ‘영암형 통합복지’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1일 영암군에 따르면 통합돌봄추진단은 초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돌봄 공백 문제를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로, ‘영암군민이 사는 곳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돌보는 복지 모델’을 제시·실행하는 것이 목표다.

2024년 기준, 영암군의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 비율은 29.9%로 초고령화 사회 기준 20%를 초과한 상태다.

특히 1인 세대 비율은 54.1%이며, 가족에 기반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가족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돌봄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와 함께, 국민의 56.5%가 자기 집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수요와 분절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돌봄 서비스의 현실이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승희 영암군수가 지난해 6월27일 도포면 함반동경로당을 방문해 마을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생활 전반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암군 제공>

지자체가 돌봄 통합플랫폼 운영 등 통합복지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해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도 제정돼 2026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올해 1월 출범한 영암군 통합돌봄추진단은 모두가 돌봄이 필요한 시대에 지속적 관계와 신뢰 형성에 기반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해법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개별 지원에서 자원과 네트워크 지원으로 전환 ▲사전조사·사례회의로 중복지원 예방 및 역할 분담적 서비스 제공 ▲일회적 만남에서 지속적 관계 형성을 기본 방향으로 통합돌봄 체계 구축 등에 나선다.

2팀으로 구성된 추진단의 돌봄정책팀은 돌봄 정책 기획, 사업조정, 법·제도 정비, 자원발굴 연계 등을, 통합사례팀은 주민 위기 사례 밀착 관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각각 담당한다.

추진단은 현재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영암군보건소, 복지관, 병·의원 등

지역 복지지원들과 협력해 복지·보건·의료 등을 망라한 통합적·체계적 돌봄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지역 통합돌봄 정책 설계를 위해 전남사회서비스원과 함께 어르신·장애인 등 700명을 표본으로 ‘지역 돌봄 수요 및 현황 진단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 조사 결과를 분석해 영암군 통합돌봄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통합돌봄 시범사업 시행에도 나설 예정이다.

김재남 통합돌봄추진단장은 “영암군민이 사는 곳에서 충분히 돌봄을 받으며 존엄하게 살아가 수 있도록 촘촘한 영암형 통합돌봄 체계를 지역사회와 함께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영암=나동호기자

강진군, ‘명품 한우’ 육성... “송아지 브랜드 강화”

우량 생산 등 43종 세부사업 추진...112억 투자

강진군이 우량 송아지 생산과 한우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21일 강진군에 따르면 최근 강진원군수는 강진 가축시장을 방문해 축협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한우농가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강진군은 2025년 총 112억원 규모의 한우산업 투자사업을 시행하며, 한우 개량, 품질향상, 사양관리, 마케팅 등 7개 분야 43종의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강진군은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 사업을 8년째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년 대비 5천100만원의 추가 확보한 2억3천100만원을 투입해 체계적인 한우 개량과 우량 송아지 생산에 집중할 계획이다.

고등 등록우는 전남에서 가장 많은 1천197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우 도체 성적 1등급 이상 출현율은 75.3%로 12년 전 대비 약 13% 상승했다. 이를 7%까지 향상시키기 위해 암소와 거세우의 육질 향상을 위한 개량 신규 지원책도 발굴 중이다.

노후화된 강진 가축시장은 24년 만에 현대화돼 최대 340두를 거래할 수 있는 계류시설과 전자경매시스템 등을 갖췄다. 이를 통해 한우농가의 출하 편의와 유통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군은 또한 45세 이하 청년 농업인에게 교육비와 자격증 취득비를 지원하며 한우산업에 종사할 청년 인력을 육성하고 경영안정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진원 강진군수가 설 명절을 앞두고 한우 경매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강진 가축시장을 방문해 축협 관계자와 한우농가를 격려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강진원 군수는 “사료비 인상과 한우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진=정영록기자

신안군, 작은 섬 방문 챌린지 추진

탐장급 이상 대상...주민 소통 강화·안정감 제공

신안군은 21일 “탐장급 이상 공무원의 적극적인 섬 방문을 통해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최근 주간업무보고회에서 탐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신안군 내 작은 섬 방문 챌린지를 공식적으로 주문했다.

신안군은 총 1천28개의 도서 중 77개의 유인 섬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본도(14개 읍·면)를 제외한 63개 섬이 이번 방문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번 챌린지는 탐장급 이상 공무원의 작은 섬 방문 경험이 약 25%에 그쳐 방문율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1년 안에 1회 이상 직접 방문해 주민들과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우량 군수는 “군 공무원들의 유인 섬 방문은 단순한 행정적 활동을 넘어,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챌린지는 신안군이 추진 중인 ‘1섬1무지업’, ‘1섬1정원화’와 같은 문화·생태 프로젝트와도 연계돼 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면서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안=양훈기자

영광군 미래교육재단 설립 ‘속도’

재단 기본계획·타당성 조사 용역...하반기 출범

영광군은 “최근 미래 지향적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영광만의 특색있는 교육생태계 조성하기 위해 구성된 영광군 미래교육재단 설립준비위원회 회의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영광군 미래교육재단 설립준비위원회는 교육재단 설립에 따른 다양한 교육주체의 의견수렴을 위해 2023년 8월 군, 군의회, 교육지원청, 민간단체, 학부모 등으로 구성해 출범했다.

그동안 위원회는 재단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재단 조례안 및 정

관 등 재단의 비전과 목표, 체계와 계획을 수립하는데 다양한 의견을 줬다.

영광군 미래교육재단은 ‘지역이 함께 키우는 교육, 배움과 성장으로 지속 가능한 영광’을 비전으로 지역의 특색을 담아내는 교육, 보편적 교육복지 등 지역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영광군은 재단 설립을 위해 타당성 조사 용역, 전남도와 협의를 완료하고

향후 교육재단 운영 업무협약, 조례 제정, 임원 공모 등 행정절차를 추진해 2025년 하반기 재단을 출범할 계획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영광군 미래교육재단 출범으로 영광에서 배우고 자라나는 것이 자랑이 될 수 있도록 명품 교육 도시를 만들어 갈 계획”이라며 “지역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데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기자



동계 전지훈련을 위해 완도군을 방문한 조선대학교 축구팀이 완도군공설운동장 축구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완도군 제공>

‘해양 치유’ 완도, 동계 전지훈련지 각광

완도군이 동계 전지훈련지로 또 한 번 주목받고 있다.

21일 완도군에 따르면 군은 온화한 기후와 깨끗한 자연환경, 각종 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선수 경기력 향상과 재활 치료에 도움이 되는 해양치유 프로그램도 할 수 있어 동계 훈련의 최적지다.

지난 6일에는 경기도 비룡초등학교

의 11개 유소년 축구팀을 시작으로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정읍시 인성고 야구팀, 안성시청 외 2개 소프트 테니스팀, 충북 청주시 산남중학교 외 6개 배드민턴 중등부팀 등 총 22개 팀 500명, 야구 2개 팀 7명, 소프트 테니스 3개 팀 23명,

역도 5개 팀 25명, 배드민턴 7개 팀 79명 등 총 39개 팀 700여명이 찾았다.

선수들은 종합운동장을 비롯해 완도 야구장, 소프트 테니스장, 완도중학교, 고급 축구장, 신지 명사십리 등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에 임하고 있다.

완도군은 전지훈련팀에게 공공 체육 시설 이용료 감면, 차량 지원, 스토브리 그 운영 등과 훈련이 없는 시간에는 관광·문화 유적 탐방 프로그램 및 관광지 무료입장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 중이다.

특히 해양치유와 연계해 선수들의 피로 회복과 체력 측정 등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타 지역과 차별화된 전지훈련지로 각광받고 있다.

전지훈련팀은 평균 10일에서 한 달여간 완도에 머물 예정이며 겨울철 관광비수기 동안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완도=윤보현기자

서해해경청, 설 연휴 해양오염사고 예방

취약 지역 중심 순찰 강화...신속 대응 체계 구축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21일 “오는 24일까지 설 연휴를 맞아 해양오염사고 예방 활동과 방제 대응 태세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해해경청은 대규모 기름을 저장하는 해양시설(300kl 이상 64개소), 장기계류 선박(65척), 모박지 급유 작업 선박 등 해양오염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사고 예방 활동을 진행한다.

특히 설 연휴 기간 동안 오염사고 위험이 높은 시설과 항포구에 대해 방제정을 활용한 순찰을 강화하고, 방제지원센터의 방제장비를 긴급 동원하는 등 신속한 대응 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6일간 이어지는 이번 장기 연휴를 고려해 지자체와 해양환경공단 등 해양오염 협력 기관 및 단체와의 비상 지원



체계를 더욱 견고히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해양오염 사고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방제 대응으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기자

해남군, 청년농 정착 지원사업 대상 모집

내달 5일까지 접수...후계농업경영인도 모집

해남군은 21일 “오는 2월5일까지 지역 차세대 농업리더 육성을 위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 농업인들이 성공적인 농업 비즈니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과 자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영농 경력 3년 미만인 만 40세 미만의 예비농업인이나 독립영농 경력 3년 이하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최대 3년간 월 90만원에서 110만원까지 정착지원금을 받을 수

으며, 각 가구당 최대 5억원의 정책자금 융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남군은 지난해 88명을 포함,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전남 최대 규모인 276명의 청년농업인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로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청년농업인 육성 우수기관 평가에서 전국 시·군 중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젊은 농부 육성으로 농업 부문과 농촌 공동체의 지속적인 활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남=박필용기자